

민선 5기, 장애인 정책에 바란다.

황영란 |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지난 주 토요일, 모처럼 예당저수지를 다녀왔다. 예당저수지는 해마다 대여섯 번은 다녀올 정도로 자주 간다. 그렇지만 예당저수지는 나에게 그림과 같다. 언제나 차 안에서 감상만 했기 때문이다. 산책로는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정돈되었고, 조각 공원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건물들도 많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하는 외국만큼이나 먼 곳이다. 남편이 오랜 외국 생활을 마

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 가족은 예당저수지 산책로를 따라 한 시간 이상을 헤매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돌아온 기억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 그 사회의 문화를 누리며 산다. 그렇지만 중증의 장애인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결단과 노력을 해야만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 11월 중순의 예당저수지는 낙엽도 풍요로웠고, 태풍 곤파스를 이겨 낸 사과도 탐스러웠으며, 방갈로 좌대에 앉아 낚시하는 사람들도 유난히 여유로워 보였다. 나 또한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 차도 마시고 싶었고, 시원한 매운탕도 먹고 싶었지만 동양 최대 크기라는 예당저수지를 지척에 두고 그 날 역시 드라이브로 만족하고 돌아와야 했다.

5년 전, 「장애인동료상담」이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장애인자립생활」 이념을 접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해 온 「장애인자립생활」 이념이 충청남도에서는 새로운 장

애운동으로서 이슈화되는 시기였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단계를 다섯 가지로 나누면서 각 욕구는 하위단계가 충족된 후에야 상위 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첫 번째 단계인 생존의 욕구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곤 했다. 처음 사고를 당했을 때는 휠체어 위에도 앉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 밥을 먹고, 용변을 보고, 잠을 자는 일조차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일정에 맞추며 살았다. 그때의 기억은 스스로 밥을 해먹고, 화장실을 다니게 된 후에도 잊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시기에 접한 「장애인자립생활」 이념은 마치, 머리에 자진이 일어난 것처럼 충격적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절반의 실패를 예고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을 무능하고 수동적이며 배타적이게 만들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을뿐더러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다보니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주장하고, 선택하는 일에 서툴렀다.

그렇지만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충청남도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무엇보다 당사자 욕구에 맞는 정책을 끌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의 창구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추어 장애계도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힘의 논리에 좌지우지하며 방관했던 담당공무원들도 달라져야 한다. 어느 사회든, 어느 집단이든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세력 갈등과 기득권 싸움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고 대중에게 이익이 없는 것이라면 참으로 시대는 사회적 영웅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다 속을 알기 위해서 수면 위를 보는 사람은 없다. 조개를 깨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면 위에 떠 있는 사람은 없다. 필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순회하며 자립생활이념을 교육했고 그 곳에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을 만났다. 때로는 장애인 시설이나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몇몇 장애인들의 삶만 윤택하게 할 뿐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답답했다. 장애인 정책의 전달체계가 평가방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답답함은 계속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체계에 있는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치료사, 시설장, 단체장 등의 윤리의식이 중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가치관이 필요하다.

장애는 보통의 장애인들에게는 약함이 되지만 특정인에게는 힘과 권력이 되기도 하다. 그래서 때로는 대중이 인질이 되기도 한다. 산등성이에서 맞는 바람과 정상에서 맞는 바람은 처음부터 다른 바람이었던 것처럼 매서움의 깊이가 다르다. 민선5기 장애인 정책은 밑으로부터의 소통과 대화를 끌어내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이 아닌, 더디고 느리더라도 가장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장애는 그 유형만큼이나 욕구도 다양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누군가가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장애인자립생활이념」조차 접하지 못하고 절대적 고독과 차별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세상 밖의 장애인들일 것이다.